

##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송 현 호\*

### 요약

『무정』은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여정을 통해 춘원의 고아의식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풍경이 담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춘원의 고아의식이 실제적 이주나 상상적 이주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형식은 다섯 차례의 이주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교사의 길로 정진하는 정체성의 정립을 하게 된다. 교육자의 길을 가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게 되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이주는 이향의 원인과 재직 학교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가의 삶과 유사한 여정으로 볼 수 있다.

이형식의 미국 이주는 춘원의 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춘원은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하지만 미국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산은 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려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민족적 역량을 키우려고 애썼다. 춘원은 이형식을 통해 미국 유학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했다.

박영채는 다섯 번의 이주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에서 신여성으로 탈바꿈하는 동적 인물이다. 영채는 춘원이 사랑한 박 대령의 딸 애옥의 여성상에, 이 시기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던 신여성들의 이미지를 덧씌운 새로운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의 여성상이다. 조선의 새로운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억압받고 불평 등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조선의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책무를 지닌 여성들이다. 그들은 신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무지한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영채가 동경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통과제의로 볼 수 있다. 형식은 첫 단계인 일본 유학을 마친 상태여서 다음 단계인 서구로 가는 것이지만, 영채와 병욱은 아직 첫 단계를 마무리한 상태가 아니었다. 때문에 동경에서 음악학교를 졸업한 병욱은 독일로 유학을 하며, 형식과 병욱의 같은 영채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다.

주제어: 고아의식, 이주담론, 민족의식, 준비론, 인문학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이형식의 이주와 교육구국론
3. 박영채의 이주와 새로운 조선의 여성상
4. 결론

## 1. 문제의 제기

『무정』의 이주담론은 춘원의 고아의식과 그 극복과정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춘원은 천도교 탄압으로 고향을 떠나 경성과 동경을 전전하면서 고아의식을 천형처럼 안고 살았던 지식인이다. 이 소설에는 춘원의 투영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여정은 춘원의 고아

의식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근대문학의 이주담론을 연구해오면서 조선인들의 국내외 이주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인들은 선인으로 불리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타자 대접을 받았다.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낯선 곳으로 이주한 바 있다. 춘원의 이주도 그러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1)</sup> 춘원의 이주담론을 살펴본다면 그가 지니고 있던 고아의식과 그 극복과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정』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된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문제의식과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간 『무정』은 근대소설의 선구자적 작품이라는 평가<sup>2)</sup>와 신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sup>3)</sup>로 양분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당대의 문물, 제도 그리고 이념 등이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고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4)</sup> 또한 ‘근대소설의 서사 구조’

1)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6, 23-42면.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2016.10, 726-735면.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12, 165-188면.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24屆 중한문화관계국제학술연토회』, 2016.12, 57-68면.

2)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4) 서영재,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한국의 근대문학과 연애론』, 『비교문학』

라는 틀을 적용하여 『무정』이 가진 서사물의 보편적 특질에 주목함으로써, 『무정』이 세계문학의 일부분으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sup>5)</sup> 『무정』의 문체를 전적으로 작가의 정신과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보았던 과거의 연구에서 벗어나 소설과 발표 매체, 독자 간의 소통 구조를 둘러싼 종합적 환경의 산물로 보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무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바 있지만 이주담론에 주목한 논문은 최선호의 글이 유일하다. 최선호는 춘원의 디아스포라 의식이 『무정』의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공간의 이주를 통해 디아스포라 의식이 어떻게 서구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모아지는가를 밝히고 있다.<sup>7)</sup>

그런데 이주담론의 문학은 과거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재의 '징후'를<sup>8)</sup> 포착하여 미래의 희망을 구현할 수 있다. 희망은 욕망

28호, 2002.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호, 2005.

5) 이보영, 『한국작가와 교양의지』, 『한국현대소설의 연구』, 예림기획, 2001.  
진상범, 『이광수 소설 『무정』에 나타난 유럽적 서사구조』, 『독일어문학』 제17집, 2002.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6) 김영민,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소설의 정착과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12.

이희정,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문체변화 과정(2)』, 『우리말글』 41집, 2007. 12.

하타노 세츠코, 『〈무정〉의 문체와 표기에 대하여』, 『제24屆중한문화관계국제학술연토회』, 2016.12.

최주한, 『근대소설 문체 확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도정』, 『근대서지』 7, 2013.

7)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춘원연구학보』 제8호, 2015.

8) Jacques-Marie-Émile Lacan, Livre XXIII: Le sinthome 1975-1976. Paris: Seuil, 2005.

에 부합하는 전망일 수 있고, 과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일 수 있다.<sup>9)</sup> 춘원은 당대의 징후를 포착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춘원의 희망은 현재의 조선이 아니라 시공간을 이주하여 미래의 조선에 머물 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춘원의 고아의식과 이주체험이 『무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풍경이 담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춘원의 고아의식이 실제적 이주나 상상적 이주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이형식의 이주와 교육구국론

『무정』은 이형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과 박영채를 중심으로 한 플롯이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 여러 개의 사건이 가미된 복합플롯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형식의 플롯이다. 『무정』에서 이형식은 다섯 차례의 이주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교사의 길로 정진하는 정체성의 정립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이주는 평안남도 안주읍 박 진사의 집에서 경성으로의 이주이고, 두 번째 이주는 일본으로 떠나는 이주이고, 세 번째 이주는 경성에 돌아와서 경성학교에서 4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는 이주이고, 네 번째 이주는 경성에서 미국으로의 이주이고, 다섯 번째 이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국에서 경성으로의 귀환이다. 교육자의 길을 가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게 되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여정은 이항의 원인과 재직학 학교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가의 삶과 유사한 여정으로 볼 수 있다.

9) 신구 가즈시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시공간의 이주에 관한 정신 분석학적 에세이』,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발표논문집』, 2016.10, 105면.

춘원은 11세가 되던 1902년 8월 콜레라로 부모를 여의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박 진사 집에 기거하다가 1904년 일본 관현의 동학교도 탄압으로 고향을 떠나 경성으로 이주한다.<sup>10)</sup> 경성에서 노동판과 상점 등을 전전하면서, 가난의 설움을 절감하고, 주변의 멸시와 무시, 무심한 어른들의 막말과 욕설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다. 동학당의 일을 돕다가 손병희의 추천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했다.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인들의 차별을 받으면서 자신이 부모를 잃은 고아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고아라는 인식을 하게 되며 어떻게 해야 조선의 고아인 자신이 부자유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얻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1)</sup>

『무정』의 초반부에는 형식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sup>12)</sup> 형식은 고아로 친구도 없고 의지만한 사람도 없이 홀로 살아왔다. 박 진사의 집에 있을 때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동경유학 중에도 친구를 찾기 어려웠다. 〈사랑인가〉의 문길과 큰 차이가 없는 인물 설정으로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무정』에 대한 연구는 춘원과 결부시키지 않고 살펴보기 어렵다. 인격주의비평의 시각에서 볼 때 작품에서 우리는 작가의 인간적 면모까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작가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체험 등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하고 그것이 그들의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고찰하여야 한다.

형식은 고아의식에 시달리다가 고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형을 좋아하게 된다. 그런데 그의 앞에 영채가 나타난다. 고향에 있을 때 형식과 영채는 혼담이 있었던 사이다. 영채를 기적에서

10) 『이광수전집』 6, 우신사, 1979, 326면.

11)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59면.

12) 『이광수전집』 1, 우신사, 1979.

빼내기 위해서는 천 원이 필요했지만 형식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다. 영체가 유서를 남기고 평양으로 떠나자 형식은 영체를 찾기 위해 계월향과 대동강을 찾게 된다. 그 일로 학생들과 동료교사로부터 갖은 모략과 불신을 당한다. 형식은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그만두고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런데 형식은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익숙한 동경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간다.

춘원은 왜 형식을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설정했을까? 그것은 춘원의 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춘원은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하지만 미국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춘원은 일본 유학시절 일본인들의 차별을 절감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인들의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일본인들은 명치유신 이후 자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인들을 열등한 나라의 백성들로 폄하하고 있었다.<sup>13)</sup> 조선에서 이주해온 소년 춘원은 일본인들이 차별하고 냉대하면 할수록 고아 소년 춘원에서 나라 잃은 조선의 소년으로 발전해갔다. 1907년 춘원은 미국에 체류하다가 동경에 온 도산의 연설을 듣고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민족의식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도산과의 만남을 계기로 춘원은 평생에 걸쳐 도산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sup>14)</sup> 춘원은 도산의 영향을 받아 비밀결사조직인 소년회를 결성하여 애국적인 회람잡지를 만들어 돌려보았다.<sup>15)</sup> 1910년 3월 귀국하여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의 교원이 되었으나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면서,<sup>16)</sup> 평화를 찾기 위해 이주를 감행하였다. 1914년 1

13)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환 역, 푸른역사, 2016, 53-54면.

14) 이광수, 『도산 안창호 씨의 활동』, 『삼천리』, 1930.7, 9면.

15)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63-64면.

1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①, 한길사, 1986, 331-332면.

월 신규식에 의해 미주지역 주필로 임명되었으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춘원은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해주에 이주하여 망국인의 한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글을 발표하다가<sup>17)</sup>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미국행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당시 미국은 우드로 윌슨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 윌슨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를 둔 정책을 시행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1917년 2월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자 연합국에 가담하였지만, 1918년 '14개조평화원칙'을 발표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국제연맹 창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평생 평화를 추구한 공로로 191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sup>18)</sup>

윌슨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를 둔 평화주의 노선은 도산을 통해 춘원에게 전달되었다. 춘원은 1907년으로부터 1914년 사이에 도산과 알게 모르게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도산은 만주, 노령, 연해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도산은 연해주와 만주 그리고 북경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지냈다. 도산은 당시 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력양성론을 내세워 민족적 역량을 키우려고 애썼다. 교육과 실업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일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춘원은 도산의 준비론의 전도사라 할 수 있다.

춘원은 이형식을 통해 미국 유학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립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한다.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장투쟁도 있지만 이형식은 선진 교육을 배워서 민족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미

17)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26-33면.

18)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doopedia 두산백과』 참조.



국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교육이라 하면 소학 교육과 중학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조선은 정히 페스탈로찌를 기다리는 때인 줄 아네. 조선 사람을 전혀 새 조선 사람을 만들려면 교육 밖에 무엇으로 하겠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아니 그렇겠나마는, 더구나 시급히 낡은 조선을 버리고 신문명화된 조선을 만들어야 할 조선에서는 만인이 다 교육을 위하여 힘써야 할 줄 아네.<sup>19)</sup>

왜 이형식은 당시 조선이 페스탈로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을까? 페스탈로치는 프랑스혁명의 여파가 스위스로 밀려왔을 때 고아원과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였다. 당시 유럽 사회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등하지도 않았다. 민중이 배우면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할 것이라 생각하여 교육을 통한 인류 구제의 방안인 인간학교의 이상을 제안하였다.<sup>20)</sup>

춘원은 일본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부자유와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의 고아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낀다. 춘원은 그들을 교육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부자유와 불평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인식이 고아들에게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한 페스탈로치와 같은 교육자가 조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형식의 입을 통해 페스탈로치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형식은 약육강식을 일삼는 군국주의자들의 세상인 일본이 아니라 평화주의자인 윌슨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여 조선의 페스탈로치가 되겠노라고 걱정하고 선형과 약혼을 하고 바로 유학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sup>21)</sup> 미국 이주의 과정에서 형식은 막

19) 『이광수전집』 1, 147면.

20)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doopedia 두산백과』 참조.

21) 『이광수전집』 1, 180면.

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가 가질 이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해외 이주의 분명한 목표를 세 사람의 여성들에게 설정해 주고 있다. 그의 미국에 대한 동경은 조선의 변혁과 조선인의 계몽에 필요한 선진화된 교육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체화된다.

형식과 선형은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사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구월에 졸업하고는 전후의 구라과를 한번 돌아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김장로 부부는 날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벌써부터 돌아온 후에 할 일과 하여 먹일 것을 궁리하는 중.<sup>22)</sup>

조선의 밝은 미래는 일본과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교육과 계몽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sup>23)</sup> 그렇다면 춘원은 자신이 실현하지 못한 미국 이주를 이형식을 설정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춘원은 왜 형식을 미국의 시카고대학으로 가게 했는지 궁금하다. 시카고대학과 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자료를 필자는 찾지 못했다.

다만 언더우드와 도산이 시카고와 관련이 있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언더우드는 고아들에게 한문, 한국어,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운영한 교육선교사였다. 안창호는 구세학당(언더우드학당)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고, 제중원(세브란스병원 전신)에서도 일하다가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주한다. 연세대에서는 언더우드학당 입학 117년만인 2013년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도산의 실력양성론이나 준비론 역시 언더우드에 영향 받은 바 크

22) 앞의 책, 208면.

23) 위의 책, 205면.

다.<sup>24)</sup> 언더우드는 연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1915년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한 해 동안에 미국 전역으로 보낸 편지 및 보고서가 무려 2,300여 통에 달할 만큼 열정적인 활동을’ 했다.<sup>25)</sup> 그 편지 중에는 시카고로 보낸 편지도 있다.

도산이 1925년 시카고 한인들에게 행한 연설문에 ‘10년 전 이곳을 지나갈 때에 장 씨에게서 냉면을 대접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와보니’ 반갑다는 내용이 있다. 도산은 1924년 12월 상해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와 이듬해인 1925년 덴버,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뉴헤븐, 보스턴, 폴리우버, 다뉴바, 사우스벤, 디트로이트, 캔사스, 와밍햄 등지의 한인 이주지를 순회하면서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애국애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sup>26)</sup>

그렇다면 도산이 1915년경에 언더우드의 교육사업을 돕기 위해 언더우드가 편지를 보낸 곳을 순회하면서 북장로회 관계자들을 만나 기금 운동을 하면서 재미동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도산이 들렀던 시카고대학이 춘원에게 영감을 준 것은 아닐까? 뉴욕이라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어서 제1차 동경유학시절 신한자유종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시카고대학은 1890년 록펠러의 지원으로 개교하여 프래그머티즘의 근거지로서 사회학, 교육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대학이다. 그렇다면 미국 교육학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형식을 시카고대학에 이주시킨 것은 아닐까?<sup>27)</sup> 도산의 실력양성론

24) 김인수, 『언더우드목사의 선교편지』,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25) L.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being an intimate record of the life and work of the Rev. H. G. Underwood, D.D., LL.D., for thirty one years a missionary of the Presbyterian board in Korea*, Fleming H. Revell company, 1918을 참조.

26) 현재 시카고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호성만의 『어느 엉뚱한 코메리칸』(삶과 꿈, 1992)에 구체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7) 캐나다 토론토에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17AAS 참가하여 민병

은 춘원의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어서 추론이 가능하다.

### 3. 박영채의 이주와 새로운 조선의 여성상

박영채의 이주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주는 고향인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아버지가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이고, 두 번째 이주는 평양에서 형식이 있는 경성으로의 이주이고, 세 번째 이주는 자살을 결심하고 평양으로 가다가 병옥을 만나 이루어진 황주로의 이주이고, 네 번째 이주는 황주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유학을 떠나는 일본으로의 이주이다. 다섯 번째 이주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귀환이다.

영채는 평안남도 안주의 사대부이며 자산가였던 박 진사의 딸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온 여성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학자였지만 청국지방으로 유람을 다녀온 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신식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신교육을 수용하기에 이른 시기였다. 주민들의 반응도 시원치 않고, 게다가 제자의 강도사건에 연루되어 박 진사는 두 아들을 잃고 투옥되면서 집안이 풍

---

진 박사의 소개로 현지 목사를 만나고 춘원의 유족을 만났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시카고대학 최경희 교수의 협조로 확인한 내용은 도산이 동우회 관련 일로 미국 내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시카고에 간 것은 분명하며, 그때 시카고에서 만난 조선인들은 노스웨스턴 대학 등 시카고에 있는 교육기관에 적응 둔 조선인 젊은이들이었던 것 같다. 시카고대학의 교육학과 전성기 때 듀이의 명성과도 잘 연결되어 알려졌던 실험학교(Laboratory School; 일명 Lab School)가 여전히 시카고대학 구내에 존재한다. 시카고대학 주변에는 세미너리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기독교계 세미너리가 건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한다. 〈무정〉속 시카고대학의 출연이라는 수수께끼는 도산과 시카고에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시카고대학과 영향력 있는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그 기반이 이루어질 듯하다.

비박산이 난다. 영채는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통해 전통적인 사상을 습득한 여성으로 형식에게 한글도 배웠지만, 집안이 몰락하면서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된다.<sup>28)</sup>

영채의 이주 여정을 통해 작가의 체험과 욕망이 영채에게 투영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영채는 춘원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혼담이 있었던 박 대령의 딸 애옥의 여성상에, 1910년대에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던 신여성들의 이미지를 덧씌운 여성상으로 춘원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조선의 새로운 여성상이다.

나는 이로부터 박 대령 부처와 애옥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었다. 나는 오래간만에 화락한 가정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도인들은 내가 박 대령의 사위로 결정된 것같이 알고 있었다.<sup>29)</sup>

〈그의 자서전〉에서 보면 춘원은 애옥으로부터 사랑을 독점하고 박 대령의 가족으로부터 사위 대접을 받았다. 이형식과 영채를 혼담이 있었던 사이로 설정한 것은 그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대령 일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무렵 일본 관현의 동학교도 탄압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박 대령도 서병달과 함께 검거령이 떨어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춘원과 박 대령의 이주 체험은 자연스럽게 이 소설에서 이형식과 박 진사 부녀의 이주 담론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홍 접주가 사람을 보내서 헌병이 잡으러 나간다고, 선생님 이랑 서 접주랑 너랑 잡으러 나간다고 어서 피하라고 그래서.

28) 『이광수전집』 1, 94면.

29) 『이광수전집』 6, 우신사, 1979, 326면.

그럼, 오늘 새벽에 그런 기별이 와서 선생님은 고기 장수로 채리고 피신을 하였단다. 만일 네가 들르거든 받아들 오 집주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 글쎄 그런 망할 녀석이 어디 있니? 글쎄 운현이 녀석이 읍내에 들어가서 헌병대에 일러 바쳤다는 구나. 너만 잡으면 두목들을 모조리 잡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은전으로 이십 원을 상을 탔다구.<sup>30)</sup>

일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동학농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전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농민들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아야만 했다.<sup>31)</sup> 박 대령이 실제로 평양감옥에 수배되었는지, 애육이 옥바라지를 위해 평양에 머물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춘원이 『무정』에 박찬명 대령과 애육을 박진사의 부녀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모녀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타지로 이주했거나 투옥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제의 동학 탄압이 아닌 강도사건으로 박 진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빼고 보는 거의가 <그의 자서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강도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 진사 집안이 몰락한 것은 사건 전개상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춘원은 왜 영채 아버지가 강도사건으로 몰락한 것으로 설정했을까? 이것은 춘원이 일제의 검열을 의식한 것이거나 자신의 과거행적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친척집에 머물던 영채가 아버지를 찾아 평양으로 떠나면서 첫 번째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주 여정에서 갖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평양에 도착한다. 평양의 감옥에서 만난 아버지는 너무 늙고 거지행색이었다.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식을 챙기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영채는 무

30) 위의 책, 327면.

31)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728면.

일꾼이었다. 고향에서도 야반도주를 한 처지였다. 영채는 ‘제 몸을 팔아 그 돈으로 그 아버지의 죄를 속한 옛날 처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생이 된다.<sup>32)</sup>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영희처럼 자발적으로 몸을 팔기도 하고, 현진건의 <고향>이나 김동인의 <감자>의 여인들처럼 아버지에 의해 유곽이나 노총각에게 팔려가기도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영채의 진심을 알고도 하지 않고 ‘우리 빛난 가문을 더럽히는 년아! 어린 계집이 뉘 꼬임에 들어 벌써 몸을 더럽혔느냐!’고 화를 내고 자결한다. 영채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결을 한 아버지가 야속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너는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고<sup>33)</sup> 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죽어도 부친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형식이 있는 경성으로 이주한다.

영채의 두 번째 이주는 자유로운 이주가 아니고, 평양의 기생집에서 경성의 기생집으로 옮겨가는 구속력 있는 이주였다. 기생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빚을 청산해야 한다. 영채는 형식을 찾아가지만 형식은 천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체념한다. 형식과의 결혼을 꿈꾸며 기생이 되어서도 7년간이나 정절을 지켜온 영채는<sup>34)</sup> 형식을 포기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배 학감과 김현수를 만났다가 능욕을 당한다.

영채는 자살을 결심하고, 형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아버지의 녀과 친구 월화의 녀를 찾아 평양으로 간다. 평양으로 가는 그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결하게 되면 이형식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

32) 『이광수전집』 1, 36면.

33) 위의 책, 26면.

34) 위의 책, 179면.

는 통일성 있게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독자들이 영채를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쳤다. 작가는 영채를 살려내면서 영채의 이야기를 또 하나의 중심 플롯으로 가져온다. 그리하여 중심 플롯이 두 개가 되는 이중플롯이 형성된다. 작가는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 일본 유학생 병욱을 등장시킨다. 영채와 병욱의 만남에 의해 그녀는 새로운 이주를 꿈꾸게 된다.

‘.....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도 되려니와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채 씨께서 할 일이 많지요..... 그러니깐 부친에 대한 의무 외에, 이 씨께 대한 의무 외에도 조상께, 동포에게, 자손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채 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려 하는 것은 죄외다.’

.....

‘이전에는 남의 뜻대로 살아왔거니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제...뜻...대...로...살아간단 말이야요.’<sup>35)</sup>

영채는 자신이 살아온 유교적인 삼중지도의 삶이 여성의 노예적인 삶의 길이고, 금수가 아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음을 자각한다.<sup>36)</sup> 영채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길은 끝까지 아버지가 맺어준 신랑감인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고, 다른 길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길이다. 영채는 병욱과의 대화를 통해 인습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은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존의 질서에 반기를 들고 자아 신장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 나혜석의 ‘경희’가 걸어간 길과 다를 바 없다.<sup>37)</sup> 영채는 병욱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35) 위의 책, 156면.

36) 위의 책, 155면.

37) 송현호, 『노신의 <광인일기>와 나혜석의 <경희>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비로소 사람의 피가 끓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여성에게 정절이 생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남성을 추종하는 게 자신이 할 일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찾는 것이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된다. 황주에 머무는 동안 병옥의 사현금 소리를 듣고 영채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한다. 병옥의 아버지는 음악을 광대들이나 하는 천한 일로 치부하지만<sup>38)</sup> 자신이 배운 기생의 예술적 재능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을 전공할 결심을 굳히게 된다.<sup>39)</sup> 병옥은 동경에 있는 남자 친구가 서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맞서고 있음을 알게 된다.<sup>40)</sup> 작가가 음악과 서자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조선의 인습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채는 병옥이 돌아가야 할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다.<sup>41)</sup> 춘원의 첫사랑과 같은 존재인 애옥의 모습은 병옥을 만난 이후 전통적인 여인에서 신여성으로 탈바꿈한다.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등장시킨 영채는 그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성으로, 억압과 불평등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의 여성들을 구원할 새로운 조선의 여성교육자이다.

춘원은 왜 영채를 애옥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신여성상을 덧씌운 것일까? 당시 동경에 유학 중인 신여성으로는 나혜석, 김명순, 윤심덕이 있었다. 나혜석을 비롯한 제1세대 신여성들은 가부장제적 남녀관계를 부정하고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여성의 삶에 관심을 보인다. 제1세대 신여성들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정체성을 확립

21. 2004.3. 38-43면.

38) 『이광수전집』 1, 157면.

39) 위의 책, 158면.

40) 위의 책, 159면.

41) 위의 책, 173면.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일본의 신여성인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그녀는 1868년 고급관료의 딸로 태어나 일본여자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로 연애와 결혼에서 종속을 거부하고 남녀의 대등한 애정 관계를 추구했다. 그녀는 게이슈문학회에서 일본의 대문호 나츠메 소세키의 제자인 모리타와 만나 염문을 뿌린다. 가정을 가진 모리타는 동반 자살을 제안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탐구하던 철학적 세계를 완성할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일로 그녀는 언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과 사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일명 '시오바라 사건'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의연하기만 했다.<sup>42)</sup>

형식과 선형이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고, 세 여성이 제1세대 신여성들이 추구했던 교육과 예술 분야로 진출할 포부를 피력하는 것은 춘원의 히라쓰카나 제1세대 신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새로운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노예적인 삶을 거부하고 억압받은 여성들을 변혁시키려고 한 점에서 히라쓰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성에서 삼량진에 이르기까지의 기차 여행과 삼량진의 수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세 사람의 여성들은 불분명했던 자신들의 목표와 미래가 명확해짐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무지한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sup>43)</sup>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결심을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했던

42) 김경일의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2016)에서 일본 유학 1세대 신여성들이 일본의 '히라쓰카 라이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문헌 검색을 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그런 인명을 찾을 수 없어서 일본의 춘원연구가인 니가타현립대학 하타노 세츠코 명예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히라쓰카 라이초'임을 확인하고 두산백과사전 등과 김경일의 책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43) 『이광수전집』 1, 205면.

영채를 병욱과 함께 조선에 새로운 음악을 세우려는 음악가 겸 교육자로 설정된 사실이다. 작가는 영채의 설정을 통해 예술을 천시하던 조선인의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한 셈이다.

그런데 영채가 동경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통과제의 첫 단계와 같은 것이다. 형식은 첫 단계인 일본 유학을 마친 상태여서 다음 단계인 미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영채와 병욱은 아직 첫 단계를 마무리한 상태가 아니었다. 때문에 병욱은 영채에게 ‘나하고 둘이 가서 음악을 잘 배워가지구 …… 둘이서 아메리카로, 구라파로 돌아다니면서 실컷 구경하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로 음악을 세우’자고 한다.<sup>44)</sup> 동경으로 간 영채는 ‘금년 봄에 동경 상야(上野) 음악학교 피아노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직 동경에’ 있으며, 병욱은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독일 백림에 이태 동안 유학을 하고’ 있다.<sup>45)</sup> 형식과 병욱의 길은 영채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다.

#### 4. 결론

『무정』은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여정을 통해 춘원의 고아의식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형식과 박영채의 이주풍경이 담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춘원의 고아의식이 실제적 이주나 상상적 이주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형식은 다섯 차례의 이주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분

44) 위의 책, 187면.

45) 위의 책, 208면.

명히 하고 교사의 길로 정진하는 정체성의 정립을 하게 된다. 교육자의 길을 가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게 되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이주는 이향의 원인과 재직 학교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가의 삶과 유사한 여정으로 볼 수 있다.

이형식의 미국 이주는 춘원의 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춘원은 일본이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미국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산은 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려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민족적 역량을 키우려고 애썼다. 춘원은 이형식을 통해 미국 유학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했다.

박영채는 다섯 번의 이주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에서 신여성으로 탈바꿈하는 동적 인물이다. 영채는 춘원이 사랑한 박 대령의 딸 애옥의 여성상에, 이 시기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던 신여성들의 이미지를 덧씌운 새로운 조선의 여성상이다. 조선의 새로운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억압받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조선의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책무를 지닌 여성들이다. 그들은 신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무지한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영채가 동경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통과제의로 볼 수 있다. 형식은 첫 단계인 일본 유학을 마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서구로 가는 것이지만, 영채와 병옥은 아직 첫 단계를 마무리한 상태가 아니었다. 때문에 동경에서 음악학교를 졸업한 병옥은 독일로 유학을 하며, 형식과 병옥의 길은 영채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 『이광수 전집』 1,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6,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7,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8,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별권, 우신사, 1979.

### 2. 단행본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출판부, 2009.  
김원모, 『자유꽃이 피리라』, 철학과현실사, 201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한 역, 푸른역사, 2016.  
Jacques-Marie-Émile Lacan, *Livre XXIII: Le sinthome 1975-1976*. Paris: Seuil, 2005.

### 3. 논문

- 권은, 『이광수의 지리적 상상력과 세계인식』, 『제12회 춘원연구학회 학술대회 자료로 보는 이광수』, 2016.9.24., 5-7면.

-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 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 2016.12, 223-256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6, 23-42면.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2016.10, 726-735면.
-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12, 165-188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24屆중한문화관계국제학술연토회』, 2016.12, 57-68면.
- 신구 가르시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시공간의 이주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에세이」,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발표논문집』, 2016.10, 105면.
- 윤홍로, 「이광수의 치타에서의 체험과 그의 작품배경」, 『어문연구』 10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3, 219-235면.
- 최선희,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춘원연구학보』 제8호, 2015, 83-107면.

<Abstract>

## Humanities Study on discourse of migration in 'Mujeong'

Song, Hyun-Ho

'Mujeong' shows Chunwon's consciousness as an orphan and how he overcomes it through the journey of migration of Lee Hyeongsik and Park Yeongchae. This paper explores what their migration suggests and how Chunwon overcomes his consciousness as an orphan through actual or imaginary migration.

Through five migration journeys, Lee Hyeongsik confirms what he seeks and establishes his identity as a teacher. Migration before moving to America where he finds the purpose of becoming an educator shows a journey similar to the author's life, although it is slightly different in terms of the reason of migration and the school where he teaches.

Lee Hyeongsik's migration to America is closely linked to Chunwon's view of the world. Chunwon perceived that Japan is an advanced country yet it does not guarantee freedom, equality and democracy as America does. Dosan thought there was no chance of winning in fighting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tried to develop national strength by fostering capabilities. Through Lee Hyeongsik, Chunwon clearly shows what he wants to achieve from studying in America. He wanted to provide support and education to those who



lost their living foundation taken by Japanese colonial policy to become independent.

Park Yeongchae represents a new image of Chosun women that combines an image of Aeok, daughter of Colonel Park whom Chunwon loved, with an image of modern women who were studying in Tokyo at that time. New Chosun women's obligation was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Chosun women who were oppressed and treated unfairly by men. These new Chosun women were to educate women in Chosun for them to break out from the conventions and live a new life.

Yeongchae's departure to Tokyo can be considered as a rite of passage. Hyeongsik already finished his study in Japan and the next step was to go to the West by that time; however Yeongchae and Byeongwook did not yet completed their first steps. Therefore Byeongwook move to Germany after graduating from a music school in Tokyo. The path that Hyeongsik and Byeongwook took is what Yeongchae will follow.

Key words: Consciousness as an orphan, discourse of migration, national consciousness, preparation theory, Humanities

투 고 일 : 2017년 1월 25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